

대학신입생의 진로·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및 개발 방안 연구

- H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sign and Development Plan of Program Content for Enhancing the Career·Learning Competency of University Freshmen

-Focusing on H university case-

김경화*, 김진숙**

한국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Kyung-Hwa Kim(khdream0715@naver.com)*, Jin-Sook Kim(jinsukk10@dreamwiz.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진로·학습 프로그램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신입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 그리고 신입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H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와 요구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학습 프로그램 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맞춤형 콘텐츠, 정서적 지원, 온오프라인 융합 프로그램 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진로·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공별 진로·학습 트랙, 빅 데이터 분석, 액션 플랜 등을 주요 콘텐츠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입생을 위한 역량기반 맞춤형 진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와 신입생들의 대학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신입생 | 진로·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 맞춤형 콘텐츠 | 전공별 진로·학습 트랙 | 액션플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career-learning program content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assist in freshmen's successful adapt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first, we reviewed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freshmen and education programs for freshmen. H. university freshmen's needs for support programs were analyzed. Second, a career-learning program conceptual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cedent studies and program needs analysis. Third, the program contents for enhancing career-learning competency were designed, and we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customized content, emotional support, and on-off line convergence program. It developed career-learning tracks, big data analysis, and action planning as main con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stomized career-learning programs for freshmen, which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career-learning programs and freshmen's adaptability.

■ keyword : | Freshmen | Career·learning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 Customized Content | Career·learning Track | Action Plan |

I. 서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새로운 산업 분야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학문 간의 융합으로 인해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중심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며 대학생들은 융복합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학습 역량을 갖추고 향후의 진로방향과 전략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진학 후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학업과 대인관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자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은 물론 학업상황의 변화가 더해짐에 따라 다른 학년에 비해 더욱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1]. 또한 취업준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요구를 받기 때문에 신입생들 중에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2][3].

이와 연관된 선행 연구들[3-5]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등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60%가 넘는 대학생들이 새 학기 중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6]. 본인 스스로 진로를 찾고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대학의 학업형태는 신입생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신입생 시기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업부진 나아가 대학생활 적응 및 사회·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입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신입생에게는 대학생활 적응 및 졸업이라는 최종적

인 공통의 목표가 있지만 각 개인에게 내재된 고민은 다양하다. 신입생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조사한 연구[7]에 따르면, 적성 및 진로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 및 취업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비율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결정과 책임이 따르는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진로선택과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전공과목 소화 해내기, 시험과 보고서, 선후배간 스트레스 등이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상 부정적 경험으로 나타난다[10]. 또한 전공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저하, 학업적 부담, 대인관계에서의 실패 등 신입생들은 각기 다른 문제로 다양한 부적응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11][12].

이처럼 신입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차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3][13][14]. 신입생이 놓인 상황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신입생이 호소하는 문제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과 전공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신입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추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신입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진로·학습 프로그램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신입생의 상황과 문제 그리고 신입생 대상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H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학습 프로그램과 연관된 선행연구와 H대학의 요구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신입생을 위한 진로·학습 프로그램의 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진로·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콘텐츠를 설계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입생을 위한 역량기반 맞춤형 진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의 기초자료로

써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와 신입생들의 대학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분석

대학 신입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더불어 학령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대학의 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학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전공 혹은 교양의 정규교과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강좌, 실습과 체험, 멘토링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생활 적응, 전공이해, 진로적성 이해, 외국어 습득, 멘토링, 집단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5]. 대부분 대학의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진행방식이나 제공시기, 또는 주관부서 등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의 폭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는 단발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6]. 프로그램 내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간에 차별성을 두더라도 대학생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한계가 있지만, 신입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기초한 신입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와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입생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 범위를 넓혀나간다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또한 향상될 것이다.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 및 진로·학습 관련 최근의 연구물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요한 연구목적이 신입생들의 입학 후 학업적·정서적 적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현재 신입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이나 진로 수준은 파악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로서 뒷받침 될 수 있는 후속 지원시스템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그쳤고,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신입생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성 높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신입생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일반적인 기획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신입생들이 지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입생 전체로부터 도출된 평균적인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각 개인이 요구하는 실제적 문제의 심층적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동일한 요구와 문제점 속에서도 원인과 지향점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양적 데이터와 함께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 선행연구

| 구분 | 연구자 | 내용 |
|--------------------|--------------------|--|
| 신입생 진로 및 대학적응 관련연구 | 조혜영 (2010) |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관한 의식과 요구를 비교연구하여 대학의 효율적 진로지원방안 모색 |
| | 이인경,김장희 (2011)[17] | 학교 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 분석 |
| | 김경옥 (2011) | 진로모호성, 취업압박과 외적갈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신입생 지원프로그램 관련연구 | 금명자,남향자 (2010) | 전국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입생의 낮은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
| | 김혜영, 이종숙(2011) | 2011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및 가정 제반을 파악하고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방안 제시 |
| | 민웅기 (2013) | 신입생의 대학적응을 위한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만족도 비교 |
| | 한우석 외 (2013) | 건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신입생의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 | 이문정, 최혜정(2014) | 호서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신입생 대학 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하고 효과 |

| | |
|-----------------|--|
| [18] | 성 분석 |
| 홍성연 (2016) | 학과에 대한 확신과 이해확대, 미래비전과 인생설계, 진로탐색 등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구도로 나타남 |
| 유경희, 김중경 (2016) | 자기효능감증진, 스트레스관리, 멘토링, 적응프로그램 등을 학교, 학과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

III.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의 요구도 분석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대상자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진로·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신입생들의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콘텐츠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도식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전체 도식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지방 소재 H대학에서 리더십 함양과 인성개발을 위해 개설된 기초과목 수강생들 가운데 2016학년도 1학년 1학기 4월 현재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신입생 185명이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가진 요구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설문지 문항작성을 위한 면담조사를 수행하고자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H대학의 이공계열 신입생 중에서 학생상담 센터 및 교수학습지원 센터를 통하여 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 6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H대학은 이공계열 학생의 비율이 높고 입학성적은 각 학과마다 편차가 있지만 전국의 중상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적응 프로그램, 학습상담 및 심리상담, 영어 회화 및 자격증을 위한 강의지원 등이 있다.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4]에 따르면 인문사회계 학생들에 비해 이공계 학생들이 대

학생들과 학업에 익숙해지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참여도 또한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사대상인 신입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들을 조사한 실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수업 시작 전에 조사담당자가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부한 185부의 설문지 중 미 응답 및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된 25부를 제외시키고 남은 160부로 최종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86.3%, 여학생 13.8% 이었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 64.4%, 높음 27.5%, 낮음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만족도는 보통 66.9%, 낮음 28.1%, 높음 5.0% 등으로 학업수행 곤란도는 보통 70.9%, 높음 22.5%, 낮음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신입생지원 프로그램의 요구도 분석을 위한 조사도구의 구성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포커스그룹 면담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3][13-16][20]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조사도구 구성과정

| 절차 | 세부방법 |
|----------|--|
| 초점 질문 구성 | 포커스 그룹 선정: 진로 및 학습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는 이공계 신입생 6명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행 기관이 갖추어야 할 점,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 포커스그룹의 브레인스토밍을 도출 초점질문 만들기 |
| 아이디어 산출 | 초점질문 명시 후, 2-3가지 서술답안 수합 '직업진로에 대해 알고 싶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등 어떠한 지원 사항을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함 |
| 진술문 구조화 | 아이디어 취합 후, 같은 성격 문항끼리 분류→ 목표설정, 성취 동기 등 태도 관련/ 공부방법, 진로설계 등 전략 관련/ 적성, 성격 특성 등 자아 관련/ 심리지원, 개인적 적응 지원 등 상담 관련으로 나타남 4가지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선행연구[3][13]-[16][20]를 참조하여 보완 문항을 개발함 |
| 설문지 구성 | 구조화 한 문항을 바탕으로 신입생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설문지 총 50문항, 4점 척도로 구성 ■요구도 총 36문항 |

- 학습태도 개선: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습태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요구 관련 9문항
-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 필요한 학습법의 습득을 통해 주어진 학습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요구 및 진로방향 설정에 대한 요구 관련 9문항
- 자기이해의 확장: 현재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요구관련 9문항
- 상담 프로그램: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기관에서 충족했으면 하는 조건에 대한 요구 관련 9문항
 - 상담자 및 상담상황 9문항
- 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자의 자질과 상담을 받는 동안의 환경적 필요조건에 대한 요구 관련 문항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참여의사 2문항

구성된 문항의 전체 신뢰도 분석결과 $\alpha=.888$ 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측정 변인들 사이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한글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설문문항에 대한 전체의 평균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주요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M=3.30, SD=.46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프로그램($M=3.24, SD=.469$), 자기이해 확장($M=3.09, SD=.439$), 학습태도 개선($M=3.04, SD=.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입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이며 이는 신입생들이 입학 후 대학의 자율적인 학업상황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한 현재 자신의 학과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참여의사에 따른 요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및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이러한 관심이 요구수준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 프로그램 요구도

| 영역 | 세부 항목 | M | SD |
|------------------------------|------------------|------|-------|
| 학습태도 개선 $\alpha=.706$ | 목표설정법 | 3.36 | .609 |
| | 불안 및 감정관리 | 3.21 | .695 |
| | 학습동기향상법 | 3.08 | .839 |
| | 집중력 향상법 | 3.06 | .750 |
| | 실행하기 | 3.00 | .911 |
| | 효율적 시간관리 | 2.99 | .925 |
| | 학습방해 요소 극복법 | 2.93 | .825 |
| | 평소 학습법 | 2.89 | .801 |
| | 평가하기 및 성찰활동 | 2.84 | .990 |
| | 전체 | 3.04 | .455 |
|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 $\alpha=.795$ | 진로설계 및 개발 | 3.61 | .663 |
| | 직업탐색 | 3.59 | .746 |
| | 과목별 학습방법 | 3.58 | .609 |
| | 암기 방법 | 3.54 | .699 |
| | 어학 공부 방법 | 3.30 | .799 |
| | 비판적 사고 및 자기주장 방법 | 3.10 | .833 |
| | 여러 가지 시험형태 | 3.09 | .900 |
| | 전공과목 공부 방법 | 3.07 | .884 |
| | 교양과목 공부 방법 | 2.83 | .966 |
| | 전체 | 3.30 | .467 |
| 자기이해 확장 $\alpha=.704$ | 직업 흥미 및 적성 분석 | 3.56 | .590 |
| | 전공 적성 부합도 | 3.42 | .731 |
| | 성격 및 특성 분석 | 3.36 | .695 |
| | 나에게 적합한 진로 | 3.35 | .702 |
| | 심리상태 분석 | 3.32 | .788 |
| | 가치관 및 자아정체성 | 3.04 | .907 |
| | 현재 공부 방법에 대한 장단점 | 2.64 | 1.036 |
| | 나에게 맞는 학습법 | 2.63 | .836 |
| 성적부진 이유 | 2.51 | .876 | |
| 전체 | 3.09 | .439 | |
| 상담 프로그램 $\alpha=.760$ | 의뢰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상담 | 3.62 | .633 |
| | 온라인 상담실 구축 | 3.49 | .752 |
| |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 3.47 | .603 |
| | 상담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 3.31 | .718 |
| |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3.23 | .760 |
| | 상담 프로그램 홍보 | 3.20 | .799 |
| | 지리적 접근성 용이 | 3.12 | .837 |
| | 상담형태의 다양성 | 2.86 | .835 |
| 학사 정보 제공 | 2.84 | .875 | |
| 전체 | 3.24 | .469 | |
| 전체 $\alpha=.888$ | | 3.17 | .362 |

첫째, 학습태도 개선 영역이다.

학습태도 개선 영역의 평균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설정, 불안 및 감정관리, 학습동기 향상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포커스 그룹 조사결과에서도 신입생들은 고등학교와는 다른 대학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지 파악하고 학습의지를 북돋아 주는 과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학습자들은 스스로 동기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이다[19]. 그러나 신입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사나 부모가 목표설정 에 깊게 관여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대학에서는 주위로부터 조언을 얻을 기회조차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너무 쉬워서 어떠한 학습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평이한 목표를 설정해서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학습 특성을 보이고 학업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20].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체계적인 진단과 지원을 통해 대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적 하에 대학생활을 하겠다는 학습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포커스 그룹 조사 결과 신입생들은 대체로 학업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입생들의 학습 불안을 감소시키고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학 초기부터 신입생들이 체계적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신입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행동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은 신입생들의 학습상태를 진단하여, 학습활동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 영역이다.

학습전략 및 진로개발 영역의 평균점수는 3.3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설계 및 개발, 직업탐색, 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대학에 입학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 시기에 본인의 직업진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업과 진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미래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학생자신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로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 환경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신입생의 환경분석과 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신입생들의 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의 공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스킬을 습득하도록 전략적인 학습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튜터링이나 멘토링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튜터링, 멘토링 등은 단발성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보다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이해 확장 영역이다.

자기이해 확장 영역의 평균점수는 3.09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흥미 및 적성, 전공적성 부합도, 자신의 성격 및 특성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전공 공부를 비롯하여 이성교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소비활동,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등 다양한 삶의 과제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입시준비에 쏟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생들은 자기 탐색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특성과약을 통한 재능 발굴,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탐색을 통한 직업인정을 함으로써 자기 삶의 목적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의 미숙함과 정보부족으로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심리적 고립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신입생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입생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학습법에 대한 컨설팅 및 적성과 진로선택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현재 학습능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공부는 수강, 과제수행, 시험공부, 스터디, 동아리 활동 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입생들이 학습활동에 폭넓게 참여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도록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상담 프로그램 영역이다.

상담 프로그램 영역의 평균점수는 3.24로 나타났으며 내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 온라인 상담실 구축,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1:1 개인상담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적절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상담의 물리적, 공간적 제한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은 학생들과 상담자 간의 원활한 상담 진행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는 상담자의 자질이 중요한 영향 요소이다. 상담자 및 상담상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학부 및 전공특성에 대한 이해, 전공별 배경 지식 이해,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것은 각 학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고자 하는 신입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부분이며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학생이 소속한 학과 및 전공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러 관점에서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입생들이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 상담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IV.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및 개발

1. 설계 및 개발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요구도 분석결과 도출된 신입생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학습능력개발과 진로선택지원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신입생을 위한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을 미국의 핵심역량 개발 중심의 국가진로개발기본방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의 원리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미국은 19세기부터 대학 신입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왔으며 1990년부터는 핵심역량중심의 진로개발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진로개발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대학생 이상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을 살펴보면, 첫째 영역은 '자기이해'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성장과 발달 관련 3가지 하위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영역은 '학습과 직업탐색'으로 진로정보능력, 직업탐색능력 등 5가지 하위역량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영역은 '진로계획'으로 의사결정, 진로계획 등 4가지 하위역량을 포함하고 있다[21].

나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나를 알고 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직장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는 그 직업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는 3단계를 진로개발과정의 기본으로 제시한 미국의 '국가 진로개발기본방침'의 구성 원리는 모든 진로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17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과 계획 세우기가 공통적인 내용으로 나타난

다[22].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와 직업’ 교과내용의 기본 영역도 자기이해, 직업이해 그리고 계획세우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 영역을 자기이해 및 목표설정, 학업 및 진로탐색, 진로계획 수립 등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신입생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진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학업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력을 키워야 하는 신입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였다. 신입생 진로·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념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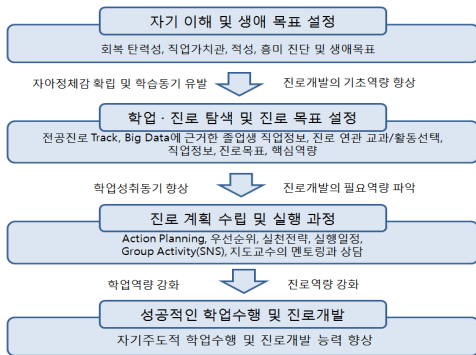


그림 2. 프로그램 개념 모형

진로와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심축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대학 신입생 단계에 필요한 공통된 내용과 함께 각 전공에 따른 분화된 내용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구성한다. 둘째, 멘토링, 상담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온라인 상담실 운용과 앱 콘텐츠 활용, SNS를 통한 집단 활동을 구성하여 On-Off Line의 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프로그램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진로·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하에 콘텐츠를 구성한다. 첫째, 신입생 요구도

검사의 결과를 반영한다. 둘째, 각 전공별 진로개발에 필요한 학업 및 진로정보를 개발한다. 셋째, 진로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하여 액션 플래닝(Action Planning)의 원리를 토대로 계획 만들기 과정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신입생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기본 3단계와 세부 13단계로 구성된다. 신입생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콘텐츠

| 단계 | 영역 | 세부 내용 |
|-----------------------|--|---|
| 자기 이해 및 생애 목표 설정 | 회복탄력성 진단 | 긍정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진단 |
| | 진로역량 진단 |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 진단 |
| | 삶의 목표와 가치설정 | 인생목표설정하기, 생애계획 세워보기, 드림맵 만들기 |
| | 나의 특성과 진로탐색 | 직업가치관, 직업적성, 직업선호도 검사진단 |
| 학업 · 진로 탐색 및 진로 목표 설정 | 진로목표 수립 | 미래직업 후보군 설정하기 |
| | 전공별 진로 Track 정보 제공 | 전공별 졸업생의 직업과 직장 유형에 따른 진로트랙, 각 트랙별 필요한 교과목, 자격증 정보제공 |
| | Big Data 알고리즘에 근거한 본교 졸업생의 직업과 직업별 종사자 정보 제공 | 본교 졸업생의 직업 분포 및 유형, 직업별 종사자의 특성유형정보제공 |
| | 나의 미래 직업후보군과 연관된 정보탐색 | 각자의 미래 직업후보군과 연관된 직업정보 탐색 및 수집방법과 소스 제공, 유사직업군별 그룹을 형성하여 정보공유하기 |
| | 진로목표 설정 |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미래 직업후보군을 대상으로 장래성, 보수, 본인의 적성이나 특성, 주위기대, 필요한 훈련이나 자격사항, 신체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진로목표설정 |
| |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과 핵심역량 추출 | 진로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학력, 자격사항, 신체적 조건, 요구되는 훈련이나 교육수준, 장래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 리스트 작성 |
| 실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 | Action Planning 포맷에 근거한 실천 계획 수립 |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필요역량을 대상으로 시급성, 필요경비,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 | 실천전략과 실행일정 작성하기 | 실천전략수립, 실행일정을 선정하고 나서 캘린더 앱에 실천계획을 탑재 |
| | 실천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Group Activity와 지도교수의 사이버 멘토링과 상담 | 유사한 진로목표를 가진 멤버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SNS를 통해 각자의 실천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나눔, 멤버들이 원할 때에는 학과의 지도교수도 그룹의 멤버로 초대하여 멘토이자 상담자 역할을 담당 |
| 후속 관리 | 후속 지원체계 및 모니터링 | 지도교수, 취업센터를 통한 개인, 집단 상담을 통한 피드백 및 후속상담 실시 |

2.1 자기이해 및 생애목표 설정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이해와 생애목표 설정이다. 신입생 요구도 검사결과 나타난 '불안 및 감정관리', '심리상태 분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복탄력성' 진단을 도입한다. 이 검사를 통하여 긍정성,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전체적인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각 하위영역의 수준을 진단한다[23]. 평균이하의 낮은 회복탄력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담프로그램을 연결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습수행과 진로개발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다.

포커스그룹 면담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진로는 물론 학습에서도 동기유발이나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신입생들의 자기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진로정체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도입하여 신입생들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진로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인생목표와 생애계획을 만들게 한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인생목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태나 수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생의 큰 그림인 생애계획을 만든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직업가치관, 직업적성, 직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도출되는 추천직업들을 토대로 진로목표에 대한 후보군을 선택하도록 한다.

2.2 학업·진로 탐색 및 진로목표 설정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학업·진로 탐색 및 진로목표 설정이다. 진로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보탐색과정으로 먼저, 전공별 진로트랙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정보추출과정은 각 학과의 협조를 얻어 각 전공별로 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진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유목화하고 진로 트랙과 경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즉, 각 학과의 졸업생들이 진출한 직업과 직장을 비슷한 카테고리 분류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졸업생들의 직업획득과 유지 및 변화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 정보는 신입생들

에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향후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해당 트랙을 진로로 설정할 경우에 필요한 수강과목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진로와 관련한 학업 정보는 신입생들이 교과목 선택과 학업성취에 방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기유발의 소재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내 컴퓨터 공학과와 인공지능연구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본교를 졸업하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빅 데이터(Big Data)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즉, 각과에서 수합한 졸업생의 진로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졸업생 직업의 종류 분포와 유형 그리고 각 직업별 종사자의 특성을 추출한다. 알고리즘 개발과정에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의 일종인 Word Embedding을 통해 Embedding Map을 구성한다. 생성된 Embedding Map을 입력으로 하여 입력데이터의 노이즈에 강건하고 데이터간의 미세한 차이까지 특징 추출이 가능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24-26]. 이 분석 알고리즘에 터한 졸업생의 사회진출에 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추출된 정보를 신입생들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전공학과를 넘어서서 자신이 속한 대학과 연관된 실제적인 진로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한 선택과정에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구적인 시도들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7][28].

앞에서 기술한 요구도 검사에서 직업탐색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왔다.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직업탐색과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전공학과 졸업자들이 진출한 직업에 근거한 탐색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대학 졸업자들의 자료에 근거한 직업탐색을 빅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게 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가까운 집단의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직업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 각자가 자신의 미래 직업후보군과 연관된 정보를 탐색하도록 정보소스와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미래직업후보

군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구성하도록 하고 멤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정보탐색의 마지막 과정은 신입생 각자가 이 단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미래직업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설정한 미래직업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원활하게 하도록 장래성, 보수, 본인의 적성이나 특성, 주위의 기대, 필요한 훈련이나 자격사항, 신체적 조건 등과 같은 평가기준의 예시들을 제공해 준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의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신입생 각자가 본인의 최종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진로목표를 선택한 후에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핵심역량을 추출하도록 한다. 핵심역량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색한 정보를 토대로 하되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찾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계에서 정보탐색에 대한 소스와 방법을 제공했으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각자 그리고 집단적으로도 실행하였고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라는 확실한 주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3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세 번째 단계는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액션 플래닝의 포맷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계획을 만드는 3단계의 과정과 방법을 제공한다. 먼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필요역량을 대상으로 시급성, 필요경비,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나면 실천사항을 행동으로 옮길 실천전략을 구상하도록 한다. 실천일정은 기본적으로 단기(1개월 이내), 중기(1-3개월), 장기(3-6개월)를 예시로 제공하고 개인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실천계획 만들기의 3단계 과정이 끝나면 거의 모든 신입생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자신에게 편한 ‘캘린더 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앱에 탑재한 실천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열고 확인할 수 있고 앱의 기능에 따라서는 알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천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진다. 액션 플래닝을 진로교육이나 대

학적응교육에 응용한 선행연구들은 액션플래닝이 포함된 액션러닝의 전체과정을 모두 적용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만 액션플래닝의 포맷을 활용한다[29-31].

앞선 요구도 조사결과에서 학교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높은 경우에 대학생활 및 학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프로그램의 액션플랜에서 자기만의 계획만들기 작업과 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팀원끼리 서로 자극을 주고 이끌어주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높지 않은 신입생들도 참여의사가 높은 다른 멤버들에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자신만의 계획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자발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다.

액션 플래닝의 과정에는 실천력을 높이는 집단 활동과 피드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은 실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집단 역학을 활용한다. 먼저, 진로목표가 유사한 멤버들로 그룹을 구성하게 한다. 그룹의 멤버들끼리 SNS를 통해 서로의 실천계획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서로 나누고 실천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통해 집단역동성을 활용하여 실천계획을 실행하는데 서로 자극과 지원을 주고받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멤버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 학과의 지도교수가 동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실천계획의 구성과 실행에 전공교수가 온라인 멘토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공지식을 소지한 전문 진로상담사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전공교수가 이 역할을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 후속관리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네 번째 단계는 후속관리이다. 신입생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본 3단계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향상된 신입생들의 진로역량을 지속시키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후속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즉, 취업센터의 컨설턴트

와의 면담이나 학교의 여타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지도교수와의 면담시간에 짧게 보고하도록 한다.

신입생의 요구도 조사에서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기초학습능력, 학습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및 학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전공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별 학습상담과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대학에서의 학습은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와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앞서 제시한 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신입생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목표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입생들이 원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전공과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기초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부 구성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콘텐츠

| 구분 | 프로그램 | 세부 내용 |
|-------|-------------------------|---|
| 학습 역량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설계 | 신입생 특성별 분석 및 대상 집단 구조화를 통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계획함 |
| | 비전 수립 |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생애목표, 진로목표와 연관시켜서 비전수립방법, 비전목표 설정, 비전선언문 작성 |
| |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콘텐츠 | 학습컨설팅, 학습상담, 튜터링, 멘토링 - 개별 학습전략 처방을 통한 학업적 지원, 자기이해를 통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북돋우는 심리적 지원, 시간관리, 목표설정, 시험준비, 학습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 학습전략적 지원 - 비슷한 문제와 고민을 가진 신입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학습하는 멘토링 |
| 학교 적응 | 심리 상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 -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대학생활 중의 크고 작은 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진행 - 온라인 개인 상담실 구축 및 활용 |
| | 전문컨설팅 및 코칭 | 비전수립과 학습설계 코칭을 위하여 전문컨설턴트의 코칭 실시 |
| 공유 확산 | 성찰 및 후속지원 | 성찰 및 성과 확인, 프로그램 개선사항 검토, 후속적인 상담관리 및 지원체계 수립 |

V. 정책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대학에서 신입생의 진로·학습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부터 웹을 기반으로 하는 다면적 통합 학생지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여 진로, 학습, 상담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 및 학습상담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별, 학과별 특성에 따른 전문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학기 혹은 한 학년도에 제한한 지원이 아닌 신입생의 진로결정 및 학업안정기까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별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전공에 따른 진로 및 준비사항 등의 심도 있는 문제해결은 학습컨설턴트나 심리상담사의 전문지식으로 한계가 있다. 신입생들의 학습 혼란을 방지하고 적절한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 통합 학습컨설턴트, 심리상담사, 전공 혹은 진로지도 교수, 선배와의 멘토링 등으로 연계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같은 전략이라도 전문가에 따른 콘텐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강, 실습, 캠프,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각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연계하여 여러 부서가 다방면으로 신입생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실시하여 신입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신입생들이 대학 내 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하여 대학생활에의 자신감과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홍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초기 정보가 부족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프로그램이 홍보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프로그램 주관기관 차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집·홍보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및 단과대학차원에서 협력적이고

체계화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범주화한 영역과 설문 문항이 전체 대학신입생 지원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성을 띠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을 위해 지방 소재 1개 대학의 이공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표본 선정 및 배경변인별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제시된 프로그램 콘텐츠를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입생을 위한 진로·학습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의 현실적인 타당성과 실행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박정희, 김홍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125-144, 2009.

[2] 이귀숙, 도수정, 송현아, “대학신입생의 성격특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3호, pp.53-73, 2016.

[3] 금명자, 남향자,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제31권, 제1호, pp.105-127, 2010.

[4] 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제24권, 2008.

[5] 김혜영, 이종숙, “2011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신입생 특성,” 학생생활지도, Vol.27, pp.1-35, 2011.

[6]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학교가기 무서워요 대학생 새학기 증후군*, 2014.

[7] 조혜영,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제3권, 제2호, pp.15-30, 2013.

[8] 박미정,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27-337, 2012.

[9] 한우석, 김진경, 이해경, “대학 신입생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522-530, 2013.

[10] 오영재,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교육문제연구, Vol.25, pp.141-164, 2006.

[11] 이미아, 이순덕, “신입생 대학적응 프로그램의 정규 교육과정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탐색,”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Vol.13, pp.111-120, 2013.

[12] 김경욱,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197-218, 2011.

[13] 김경화, 류여진, *신입생 학습 및 진로 상담 지원 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16.

[14] 홍성연, “대학 신입생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융합연구, 제14권, 제1호, pp.271-295, 2016.

[15] 유경희, 김종경, “적응 프로그램 제언을 위한 대학신입생 학교적응 관련 문헌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580-591, 2016.

[16] 민웅기, “대학적응을 위한 신입생 선행 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6호, pp.275-304, 2013.

[17] 이인경, 김장희,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pp.673-691, 2011.

[18] 이문정, 최예정, “신입생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11, pp.67-73, 2014.

[19] S. M. M. Loyens, J. Magda, and R. M. J. P. Rikers, “Self-Directed Learning in Problem-Based Learning and its Relationships with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0, No.4, pp.411-427, 2008.

- [20] 김경화, 류여진, *대학생을 위한 학습법 가이드북*, 한국해양대학교, 2016.
- [21] 이지연, “역량 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모색,” *상담학연구*, 제3권, 제2호, pp.419-438, 2011.
- [22] 강동일, 강혜영, “대학생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내용 분석: 진로탐색 및 취업면접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3권, 제1호, pp.139-156, 2002.
- [23] 김주환, *회복탄력성-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윤희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2015.
- [24] 차문수, “단어 임베딩을 통한 문서의 의미분석 개선,”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 [25] 배경만, *커뮤니티 기반 질문-응답 서비스를 위한 워드 임베딩 기반의 질문 분류 및 검색 기법*,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 [26] 김도우, *Doc2Vec을 활용한 CNN 기반 한국어 신문 기사 분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논문, 2017.
- [27] 권영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 *지능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p.87-100, 2013.
- [28] 노규성, 이주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설계 지원 플랫폼 모형에 관한 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7호, pp.167-174, 2016.
- [29] 김혜진, 김혜나, 김종민, 강신범, 남기곤, 박수홍, 강문숙, “체계적인 액션러닝을 활용한 대학원 신입생 학교생활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적용방안 탐색,” *교육혁신연구*, 제22권, 제3호, 2012.
- [30] 이용희, 오동주, 박수홍, “대학생의 활동중심 진로교육을 위한 웹기반 인터페이스 설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5.
- [31] 박경민, 강두봉, 김선정, 박수현, 추원식, 정주훈, “액션러닝을 활용한 진로교육기반 해외체험학습 모형 탐색,” *국제교육협력연구지*, 제7권, 제1호, 2014.

저 자 소 개

김 경 화(Kyung-Hw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박사)
- 2006년 4월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생 핵심역량

김 진 속(Jin-Sook Kim)

정회원



- 2010년 9월 : 일본 릿쿄대학교 문학연구과 교육학전공(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청년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장년 인생재설계 프로그램